

| 2025 지방행정 트렌드

유수동 성과 확산센터장

⚙️ 다이버시티 : 외국인 인력, 지방을 되살릴 열쇠

- 외국인근로자는 생산가능인구 확보와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통해 지방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

⚙️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: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

- 원격의료는 지방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

⚙️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: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, 특별과 통합, 그리고 제3의 형태

- 기존 지방행정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,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융합적이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부상

⚙️ 로컬 그린 리더십 :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

-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 자리 잡을 전망

⚙️ 153만호 빈집의 역습 :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

- 빈집 문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새로운 지역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바꿔주는 전환점

⚙️ 농촌 공간의 재창조 : 농촌의 새로운 얼굴,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

-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는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

⚙️ 지방교육의 전환점, 에듀테크 시대 :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

- AI시대 지방교육혁신은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

⚙️ 재난·위기관리의 나침반 : 지방주도의 재난·위기관리, 새로운 기준이 되다

-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재난·위기관리체계는 지역사회 안전과 신뢰 회복의 중요한 이정표

⚙️ 이제는 지방시대 : 지역맞춤형 지방분권,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

-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

01

지방행정의 주요 변화와 도전



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미래예측

-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미래예측과 정책대안 마련은 필수가 되었음
 - 제4차 산업혁명, 인구구조 변화,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사회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음
 - 변화하는 환경과 그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
- 미래예측과 그에 따른 대응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
 -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들은 지방행정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음
 - 체계적·종합적인 미래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며,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적 사고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, 우리사회의 요구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

02

2025 지방행정 트렌드



다이버시티 : 외국인 인력, 지방을 되살릴 열쇠

- 새로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
 - 외국인 인력은 지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잠재력이 큼
 -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던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켜 지역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정착 지원이 시도되고 있음
 - 외국인근로자를 국가성장동력이자,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가게 될 것임



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: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

- 원격의료 활성화가 지방의료 공백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
 -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,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가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료서비스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됨
 -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는 지방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공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
 - 스마트의료 모델이 지방의료 공백 해소를 넘어, 의료 접근성을 재정의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

**하이브리드 지방행정 :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, 특별과 통합, 그리고 제3의 형태**

-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이브리드 지방행정이 주목받고 있음
 - 기존의 획일화된 행정 모델과 단순한 특별·통합 방식의 대안에서 벗어나, 지역 특성과 미래지향적 행정 수요를 융합한 제3의 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임
 - 기존 지방행정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효율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임
 - 하이브리드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중심 개념으로, 기존 행정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미래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자리 잡을 것임

**로컬 그린 리더십 :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**

- 로컬 그린 리더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
 -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차원의 환경 리더십과 맞춤형 대응 전략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음
 - 로컬 그린 리더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목표 설정,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, 지역주민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,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선봉에 서는 것을 의미함
 -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, 살기좋은 지역만들기,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,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

**153만호 빈집의 역습 :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**

- 전국적으로 153만호에 달하는 빈집 문제가 지방소멸과 도시 슬럼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
 - 인구감소,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빈집은 단순한 방치 수준을 넘어, 지역경제 침체와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
 - 빈집세 도입은 방치된 자산을 관리 가능하게 만들고, 지역 맞춤형 활용을 통해 지방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
 - 빈집 문제는 위기인 동시에 지역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임

**농촌 공간의 재창조 : 농촌의 새로운 얼굴,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**

- 한국의 농촌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
 -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,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
 - 유희화 문제와 구조적 변화는 분명 농촌 지역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, 농촌 공간이 지닌 잠재적 가치는 이를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
 -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,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약화된 농촌의 내생적 동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



지방교육의 전환점, 에듀테크 시대 :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

-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의 본질과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
 - AI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며, 교육 접근성과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
 - AI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지방중소도시의 교육 혁신은 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활용가능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임
 - 지방교육혁신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,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,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



재난·위기관리의 나침반 : 지방주도의 재난·위기관리, 새로운 기준이 되다

- 지방자치단체의 재난·위기관리 능력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
 - ‘재난·위기관리의 나침반’은 지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며,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·위기관리 모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담고 있음
 - 지방자치단체는 재난·위기관리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 안전과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될 것임
 -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‘재난·위기관리의 나침반’의 방향은 단순히 재난·위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,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



이제는 지방시대 : 지역맞춤형 지방분권,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

-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임
 - 인구감소와 지방소멸, 사회적·경제적·환경적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와 맞춤형 대응,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특화발전이 더욱더 필요해졌음
 - 시·군·구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면서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
 - 개별 지방자치단체, 특히 시·군·구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권한 이양과 정책 설계를 통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임

03

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지방행정

- 지방행정은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,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·중장기적 과제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

〈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〉

트렌드	대응과제
다이버시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지역맞춤형 이민정책·이민행정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이민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, 법·제도적 기반 강화, 다문화영향평가 도입, 디지털 지원 플랫폼 확대 • 중장기과제 :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분권화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, 지역맞춤형 이민정책·이민행정 설계, 갈등관리 역량 강화
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법적·제도적·행정적 기반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원격의료의 정의와 영역구분, 원격의료 관련 법·제도적 기반 구축,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• 중장기과제 : 지역맞춤형 원격의료 활성화 및 의료격차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단계별 원격의료 세부 추진계획 마련, 거버넌스 기반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 및 합의,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
하이브리드 지방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방행정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생활권 기반 행정구역 조정, 행정협약·사무위탁 제도화,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방안 논의 활성화 • 중장기과제 :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모델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모델 개발, 컴팩트시티 구축과 지역균형발전, 광역 및 초광역 경제권 협력 확대, 정치적 리더십 강화 및 자율성 확대
로컬 그린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,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목표 설정,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 마련 • 중장기과제 :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기후변화 적응형 정책과 탄소중립 전략 통합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, 지속가능한 녹색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, 주민참여 및 시민 인식 제고
153만호 빈집의 역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빈집 실태조사와 정책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빈집 실태조사,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, 빈집 관리 시스템 개발 • 중장기과제 : 법령 제·개정과 제도적 실행 기반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법령 제·개정 준비 및 시행, 빈집세 도입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, 지역사회 협력 및 교육 강화, 빈집세와 도시재생 연계,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지원
농촌 공간의 재창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농촌 지역 유휴공간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유휴공간 실태파악 및 거버넌스 구축,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기획, 재원 및 투자유치 방안 마련 • 중장기과제 : 지원체계 확립 및 지역 특화발전전략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재구조화·재활용 종합계획 확대 적용, 제도적·행정적 지원체계 확립 및 운영 고도화, 지역 특수성 반영 및 장기적 확장 전략

트렌드	대응과제
지방교육의 전환점, 에듀테크 시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에듀테크 모델 정립 및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맞춤형 에듀테크 도입 준비, 핵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지표 개발 및 데이터 분석, IT·AI 교육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• 중장기과제 : 지역별 맞춤형 에듀테크 체계 확립 및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듀테크 기반 교육체계 확립, 교원 디지털 역량 인증제 도입, 협력 플랫폼 운영, 강사 육성 거버넌스 구축,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격차 해소
재난·위기 관리의 나침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지방주도형 재난·위기관리 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·위기관리 권한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, 재난·위기대응 전문성 강화, 중앙-지방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개선, 민간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• 중장기과제 : 지역맞춤형 재난·위기관리 및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맞춤형 재난·위기관리 체계 구축, 지속가능한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, 지방 간 및 중앙-지방 간 협력의 지속적 강화, 재난·위기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
이제는 지방시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과제 :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별 특례 발굴 및 제도적 기반 강화, 중앙정부 및 시·도와의 협력체계 강화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, 성과평가 및 책임성 강화체계 구축 • 중장기과제 : 지역특화발전 모델 및 상생발전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, 상생발전체계 구축, 지속가능한 지역특화발전 모델 구축, 지역주민 참여와 책임성 강화,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정책의 조화

참고문헌

- 유수동·이서희·이원도·유자영·김필·문혜리·김자연(2024)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 연구.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 연구보고서.

내용문의

-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 성과확산센터장(033-769-9846, soodongyoo@krila.re.kr)

